

고후쿠지 절 국보관

아수라상

국보

734년에 만들어진 이 훌륭한 상은 일본 불교 미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수라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일반적으로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지만, 불교에 흡수된 후에는 부처와 그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울퉁불퉁한 근육질에 붉은 찡그린 얼굴로 엄니를 드러내며 노여움을 상징하듯 머리털이 곤두서고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후쿠지 절의 아수라상이 널리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그 본래의 모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날씬한 몸통에 흐르는 듯 사실적으로 표현된 장식 띠와 하카마(일본의 전통 하의)를 몸에 걸치고 발에는 나무로 된 쥘신(판금강)을 신고 있습니다. 세 쌍의 팔 중 맨 위의 두 팔은 해와 달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의 원반을 올리고, 중앙의 두 팔은 활과 화살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 앞의 두 팔은 합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가르침을 들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상의 세 얼굴이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면의 얼굴이 낙담과 회한을 나타내듯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는 반면, 양 옆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한 감정을 표하고 있는데 특히 오른쪽 얼굴은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을 정도입니다.

팔부중의 다른 상과 마찬가지로 아수라상도 옷칠이 배어든 천을 겹겹이 포개어 붙여 만들었으며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CT) 결과, 정면 얼굴 아래에 다른 얼굴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얼굴은 눈살을 찌푸리고 찡그린 채 입을 벌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상의 조성을 명한 고묘 황후[701~760년, 고후쿠지 절을 창건한 후지와라노 후히토(659~720년)의 딸]가

한 살 생일을 맞기 직전에 죽은 아들 모토이 친왕을 그리워하며 원래의 얼굴을 숨기고 더 다정하면서도 젊은 얼굴로 다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습니다.